

발표자 김유준 주빌리교회 목사 / 송실대학교 초빙교수

## 1. 청년 사역의 현실

청년들은 인생의 시기에 있어서 열정과 패기로 새로운 희망을 품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시기다. 이러한 청년들은 자신의 역량과 열정을 활용하여 사회적인 영향력을 키우며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러한 성공과 영향력을 개인적 차원만이 아닌 공동선을 향한 청년 사역으로 지혜를 모으는 것은 이 시대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할 영역이다. 기독교 신앙을 지닌 대학생은 15.0%로 2030세대의 탈종교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무종교 대학생 비율은 67.7%로 증가하고 있다.<sup>1)</sup> 이러한 추세로 보면 한국교회와 교계가 청년 사역에 대한 과감한 변화와 개혁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이자 스마트 시대에 한국교회는 스마트한 사역 방향과 전략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협력이 절실하다. 변하지 말아야 할 복음의 소중한 진리와 가치를 지켜야겠지만, 시대적 상황에 맞는 변화의 옷을 갈아입는 데는 주저할 필요가 없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의미 있는 도전이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교회와 대학의 신앙 공동체는 그 존립 자체에 큰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부 초대형 교회를 제외하면 대부분 교회는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200만여 명의 개신교인이 감소한 상황에서 초대형 교회는 오히려 교인 수가 별로 줄지 않았기에 대략 100명 규모의 교회 2만 개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회의 대학청년부나 캠퍼스선교단체는 반절도 아닌 거의 붕괴가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양극화 상황은 단지 교회만이 아닌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있고, 청년들의 현실은 경제적으로도 더욱 각박해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오늘날의 청년들 대부분은 입시와 고시, 취직의 기나긴 터널 앞에서 인생의 가장 꽃다운 20대 대부분을 치열한 경쟁 속에 내몰려 각박한 삶을 살고 있고 학업과 아르바이트에 쫓기며 인생의 참된 의미를 심사숙고할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 장차 한국교회의 주역이 될 이러한 청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와 대학은 이러한 사회 전반에 걸친 현상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대안모색을 병행함으로써 청년들의 필요와 고민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청년들을 위한 목회와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 함께 캠퍼스와 교회의 사역자들은 분명

1) 캠퍼스청년연구소, 『2022 청년 트렌드 리포트: 우리 시대 청년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서울: 학원복음 화협의회 캠퍼스청년연구소, 2022), 36.

기존의 선교 방식에 대한 근본적 평가와 냉철한 진단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지역교회와 연세대를 중심으로 캠퍼스 사역을 25년 이상 병행해 오면서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사역의 패러다임과 돌파구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존 사역에 대한 반복이나 답습이 아닌 좀 더 폭넓은 영역으로 공신력을 담보한 공동선을 향한 청년 사역의 해법을 고민해 왔고, 이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캠퍼스선교를 비롯한 청년 사역을 위해서는 지역교회와 대학교회, 선교단체와 교목실 등 캠퍼스와 청년 사역자들이 속한 공동체만을 위한 파편적이고 편협한 사역에 매몰되지 않고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공동선을 향한 통전적 사역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에 대한 신학적인 틀과 협력의 체계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교회와 청년들의 현실이 어떠한지 냉철하게 짚어보고 그들의 영적 좌표를 가늠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며 접목해야 할 것이다.

요즘 청년들은 자아실현과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가치관과 문화를 수용하고 통합하기 위해 교회와 학교, 직장과 사회 곳곳의 다양한 도전과 과제 앞에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 이것을 다섯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청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일자리 불안정성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지원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과 시도는 있지만, 대부분 청년이 피부에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둘째, 청년들은 교육과 진로 선택에 많은 압박을 받는다. 학업 부담과 취업 가능성, 개인적인 관심사와 사회적인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자 많은 압박에 노출되어 있기에, '마음의 감기'라 불리는 우울증이나 우울감에 짓눌려 대인기피증이나 공황장애까지 겪는 경우도 많다. 셋째, 청년들은 사회적인 기대와 가치 충돌에 직면하여 다양한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와 문화적인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큰 도전이자 고민거리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Z세대는 SNS를 비롯한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기성세대와의 문화적 편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넷째, 청년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아실현에 대한 탐색을 모색하고 있다. 생계와 생존을 위한 취업과 창업에 관한 관심과 도전으로 때로는 실수와 실패를 통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좌절을 겪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개인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 다섯째, 청년들은 사회적 문제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는 것에 대한 압박을 받는다. 환경문제, 사회적 불평등, 인권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참여 방법을 찾는 것도 청년들에게 중요한 관심사다. 이러한 도전과 과제들은 청년들이 공동선을 위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 2. 공동선을 위한 협력과 연대 강화

청년 사역의 출발은 공동선을 위해 청년들의 협력과 연대를 형성하고 강화해야 한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 네트워킹,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통해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청년들이 공동선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핵심 가치와 활동 영역은 몇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 1) 공정과 사회적 평등, 인권과 사회적 정의

공동선을 향한 청년 사역으로 청년들이 공정과 사회적 평등, 인권, 그리고 사회적 정의를 존중하고 실현하기 위해 사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인권 보호 및 확장을 위한 활동,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 다양성과 포용을 존중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요즘 청년들은 기본적 의식주도 해결하기 쉽지 않아 매우 고단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 놓여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불을 넘어서 4만 불을 바라보는 선진국으로 자랑스러워하고 있지만, 오히려 20대의 자산은 전체 연령대의 자산 절반 규모로 계속 자산이 감소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을 대부분 모른다. 수많은 대학생이 열심히 ‘알바’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며 주경야독을 하지만 치솟는 전월세 가격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바늘구멍 같은 취업 문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 수년간 고군분투하는 취업준비생들의 일상은 애처롭기까지 하다. 소수에게 주어지는 합격과 취업의 기쁨과 달리, 대다수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경쟁의 숲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막막함과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문제는 교회에서마저 이들을 향한 공감과 위로를 기대하기 힘들다. 오히려 성공하고 취업한 이들을 향한 축하와 격려 속에 더욱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합격과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의 심리적 부담감보다 더 큰 현실적 고충은 주거 문제다. 서울 대학가에서 혼자 거주할 경우,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60~70만 원이 기본이다. 여기에 공과금과 식비 등을 포함하면 최소 월 1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 결국 FM(Father & Mother) 장학금이 없다면 고스란히 생계형 채무자가 되어 결국에는 ‘청년실신’(청년 실업자 신용불량자)이 되기 쉽다.

교회에서 이러한 청년들의 고민과 고충은 자신의 ‘노오력’이 부족한 자들의 자기변명처럼 치부되기 쉽다. 이원석 작가가 지적한 대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자조’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한계를 단지 개인적 문제로 치부해 버리고 있는 ‘거대한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야말로 “하늘은 ‘서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삶의 진리를 깨우쳐 주는 ‘공조’ 사회의 모범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교회에서, 특히 대학청년부 예배와 소그룹에서 이러한 나눔은 소위 세속적이고 영적이지 않은 물질적 차원으로 치부되기 일쑤다.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과 다를 바가 없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고 보며 영적인 것만 추구했던 극단적 이원론이 오늘의 한국교회 현실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부분의 비유가 돈과 재물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과연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요즘 한국교회 대학청년부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수준’의 청년으로 평가받지 않겠는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식할 정도로 각박해진 오늘날 한국사회의 청년들은 공정과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가치를 가지고 사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과 대응, 기회의 평등성을 증진하는 교회와 시민 단체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2)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

공동선을 향한 청년사역으로 청년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를 추구하는 가치를 가지고 사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솔루션에 대한 인식과

행동, 에너지 절약 및 재활용 활동, 환경 교육과 캠페인과 연구, 시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정부 관련 부처의 각종 사업과 프로젝트에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구청과 시청,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자격을 미리 갖추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재정적 필요 때문보다는 관(官)과의 관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생태구조와 제도적 변화의 중요한 정책과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며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선교를 전면에 부각할 수 없는 한계는 분명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땅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섬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글로벌 차원의 중장기 사역을 위해서는 공적개발원조(ODA) 자금과 같은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국가와 민간 차원의 다양한 공적자금에 적극 관심을 기울여볼 만하다.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의 코이카(KOICA)에서만 매년 5조 원에 육박한 금액을 동남아나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지역의 최빈국에 무상원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산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유상원조를 포함해서 천문학적 금액을 국제개발협력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KOICA의 경우, 2021년 기준 750여 개 이상이 사업이 수십억 원 단위로 입찰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대학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연계해서 글로벌 차원으로 중장기적 사역의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해 2000년 UN 총회에서 189개국이 채택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을 통해 다차원적 빈곤 해결을 위한 공동의 청사진을 마련했다. 특히 하루에 1.25달러 이하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절대빈곤율을 50%로 감소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기아, 교육, 보건, 환경, 개발협력 등을 포괄하는 8가지 목표와 60여 개의 측정 가능한 지표를 사용해 구체적인 달성 기한을 정했다.

결국, 전 세계 절대빈곤에 처한 이들을 50% 이하로 줄이자는 새천년개발목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 2015년 제70차 UN 총회에서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내세워 하루 1.9달러 미만으로 사는 절대빈곤율을 0%로 줄이자는 야심 찬 목표와 함께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를 내놓았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 정부 정책 및 관련 법을 통해 UN-SDGs의 개별목표를 이행하고 있다. UN의 이러한 목표는 OECD에 속한 선진국들을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를 요청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얼마든지 선교적 마인드로 품고 함께 할 수 있는 사역들이기에 빈곤 문제 해결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중장기적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채널이다.

### 3 교육과 역량 개발, 사회적 기업과 협력

공동선을 향한 청년 사역으로 청년들이 교육과 역량 개발을 통해 사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핵심 가치를 논의할 수 있다. 또한 청년들이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핵심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 기회를 추구하는 활동, 자기 계발과 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취업과 창업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사회적 기업의 지원과 창업을 통한 사회적인 영향력 발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청년들은 공동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 영역에 참여하여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는 사회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필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실천하는 희년 공동체를 갈망하며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주빌리교회를 개척하여 코피발리 안국점 카페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주일예배를 시작했다. 지난 14년간 시무하던 담임 목회를 사임하고 대학청년을 위한 교회를 새롭게 개척했다. 청년 사역에서 담임 목회지를 찾아 나서는 일반적 목회의 길과는 반대의 길을 선택했다. 담임직을 내려놓고 청년 사역자로 카페로 나왔다. 사실 대학청년을 더 쉽게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대학청년의 ‘놀이터’로 찾아간 것이다. 2019년 5월에 대학청년 창업과 취업의 발판이 되고자 카페를 시작했는데, 이곳을 통해 벌써 세 팀이 창업했고, 여러 청년이 4대 보험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에 도움을 받았다. 개인적으로 카페 수익금이 생기지 않아도 대학청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배불렀다.

무엇보다도 카페를 통해 북촌 인근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4050세대와 인생의 노년에 의미있는 일을 하고자 덕업(德業)을 이어가는 6070세대를 알게 되어 그들과 소통하는 <북촌문화포럼>으로 함께 모여 ‘K-Culture Campus’를 기획하게 되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대학교와 옥스퍼드대학교, 미국의 뉴욕대학교와 프린스턴대학교처럼 도시 전체가 학문과 배움, 지성과 영성의 장이 펼쳐지는 것처럼 종로와 북촌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와 예술문화, 그리고 생활문화를 꽃피우는 ‘K-Culture Campus’를 세우게 되었다. 스위스 철학자로 영국 런던에 거주하는 알랭 드 보통(Alain de Botton)이 운영하는 인생학교(The School of Life)와 같은 컨셉으로 서울 도심에서의 문화마을공동체를 세워가는 비전을 품게 되었다.

2024년이면 65세 고령인구가 천만 명이 되는 한국 사회에서 6070세대는 단순히 정부가 ‘도와줘야’ 하는 지원 대상이거나 사업가에게 있어서 실버산업을 통한 막대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수입원’이 아니다. 오랜 세월 축적된 인생의 지혜와 노하우를 생업(生業)으로 분주하게 살아가는 4050세대와 창업(創業)과 취업(就業)으로 고민하는 2030세대를 위한 멘토이자 큐레이터, 커넥터 역할을 감당하는 ‘덕업’의 주인공이다. 세대 간의 갈등과 골이 깊어진 요즘, 6070세대의 덕업은 세대 간의 갈등 해소는 물론 사회통합과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이처럼 교회가 로컬에서 예배와 친교 등의 교회 울타리 안에서의 사역에만 머물지 않고 선교와 구제, 문화적 소통과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마을주민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주빌리교회가 카페를 통해 고급 커피를 마시는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했기에 이러한 문화마을공동체를 위한 토대가 형성될 수 있었다. 교회의 여유 공간이 있다면, 아니 여유 공간을 만들어서라도 지역 주민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한다면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변화의 싹이 움튼 것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것이다. 복음의 씨앗은 헌신과 섬김의 향기를 통해 은은히 퍼져나갈 것이다.

### 3. 공동선을 향한 청년 사역의 효과적 전략

위에서 제시한 이러한 도전과 과제들은 청년들이 공동선을 위한 사역에 참여하면서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다. 이를 위해 청년들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리더십 개발, 사회적 네트워킹, 정책적인 지원 등이 필요하다. 공동선을 향한 청년 사역, 그중에서도 청년들이 사회 문제에 대한 참여를 늘리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은 다섯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청년들에게 사회 문제에 대한 교육과 의식 개선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학교, 대학, 사회단체 등에서 사회 문제와 그 원인, 영향 등에 대한 교육과 토론을 활발히 진행함으로써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다. 둘째, 청년들에게 사회 참여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자원봉사, 지역사회 프로젝트, 사회적 기업과의 협업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사회 문제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청년들은 디지털 도구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청년들끼리의 네트워킹, 정보 공유, 협업을 촉진함으로써 사회 참여를 증진할 수 있다. 넷째, 청년들의 리더십 개발과 자기 주도적인 활동을 지원하여 사회 문제에 대한 참여와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리더십 교육, 창업 지원, 프로젝트 관리 등을 통해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사회적 기업은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청년들과 사회적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기업의 지원과 멘토링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 문제에 대한 참여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와 기회를 마련하여 청년들이 주도적이며 자발적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참여와 변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청년들이 사회 문제에 참여할 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청년들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품고 있는 사회 문제에 참여해야 한다. 자신의 가치관과 관심사를 기반으로 선택한 사회 문제에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을 때,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가 가능하다. 둘째, 청년들은 사회 문제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관련된 지식, 기술, 리더십 능력 등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육, 자기 계발, 멘토링 등을 통해 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있다. 셋째, 청년들은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사회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이 존재한다. 이를 수용성 있게 포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다양한 배경과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청년들은 사회 문제에 참여할 때 단기적인 해결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전망과 지속 가능한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솔루션과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 장기적인 사회적 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섯째, 청년들은 사회 문제에 참여하며 자기관리와 재충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사회적 참여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청년들 스스로의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휴식과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청년들이 사회 문제에 참여하여 좀 더 긍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연한 사고와 적극적인 태도로 지속적인 자기 계발과 협력을 통해 사회 참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 4. 공동선을 향한 청년들을 위한 리더십 개발, 청년들의 연대와 협력

최근에는 청년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사회적 변화와 공동선을 위한 사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다양한 세대 간의 가치 충돌과 문화적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방식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한다. 또한 청년들이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수행하고 공동선을 위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청년들이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는 방안,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 모델 등을 다루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선을 위한 혁신적인 사회 참여를 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한 활동,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청년들의 창업 및 창의적 아이디어 지원 등을 다루고 있다. 청년들의 멘토링과 지원 체계 구축도 중요한 영역이다.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선배나 멘토가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조언과 지도를 제공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청년들이 사회와 교회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리더십 기회 제공, 교육 및 자원 지원,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다. 정부, 교육기관, 사회단체 등이 협력하여 청년들에게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경제적인 지원, 취업 및 진로 지원, 심리적인 지원, 교육 및 교육 개혁 등을 포함한다. 또한 청년들은 진로 선택과 자기 계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진로 탐색 프로그램, 직업 훈련 및 직무 역량 강화,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청년들은 사회적 가치와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이해와 통화를 도모하고,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청년들은 리더십 개발과 사회 참여를 통해 도전과 과제를 극복할 수 있다. 청년들에게 리더십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사회 참여를 위한 기회를 확대하여 청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발휘하고 사회적 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5. 공동선을 향한 청년들의 연대와 협력

청년들은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도전과 과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끼리의 협업, 지역사회와의 연계, 사회적 기업과의 파트너십 등을 통해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 공동선으로 존재하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과 그분께서 창조하신 세상도 공동선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함을 신뢰함으로부터 청년 사역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공동선을 “모든 사람을 향해 열린 손”으로 묘사한 송용원은 공동선 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교회와 세상이 오늘날 아니라 내일의 현실을 넓게 그리고 깊이 담아내는 공동선을 구현하려면, 이념을 넘어 생명으로, 개념을 넘어 실천으로, 사회성을 넘어 영성으로, 세상 나라를 넘어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는 존재적, 심미적, 역사적 상상력이 필요하다.”<sup>2)</sup>

“공동선은 하나님, 나, 이웃이 하나로 이어진 전망을 드러낸다”고<sup>3)</sup> 서술한 월터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은 “살롬의 기치 아래서 생동하는 공동선은 누구도 함부로 배제되거나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야 하며, 그 누구도 낙오될 수 없음”을 강조했고,<sup>4)</sup> “공동선은 인자, 성실, 긍휼, 정의, 공의와 같은 영적인 것과 함께 정치적, 사회적, 육체적 안녕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다.<sup>5)</sup>

초대 교부이자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었던 요한네스 크리소스토무스(John Chrysostom)는 고린도전서 11:1 강론에서 공동선에 대해 이렇게 설교했다.

“공동선을 추구하는 일이 가장 완벽한 기독교의 법칙이고, 정확하게 세워진 이정표이며, 무엇보다도 최고점이다. 바울 자신도 ‘나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덧붙이며 선언했다. 이웃을 돌보는 것만큼 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sup>6)</sup>

짐 윌리스는 공동선을 위한 실천으로 공동선을 주장하고 그것을 위해 살고 행동하겠다는 결정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우리 문화와 시장은 자신만을 위해 살라고 날마다 끈질기게 우리를 압박한다. 그러나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최선의 방식이 아니다. 서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우리의 인간성을 좌우한다. 이것이 공동선의 토대이며, 역사를 통틀어 공동선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들은 이 점을 이해했다.”<sup>7)</sup>

최근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양극화와 사회 전반에 걸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해 있다. 공동체 사이와 공동체 내에서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고,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그로 인해 공동체가 소외되어 모든 부문에서 사회적 신뢰와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공동선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영국 성공회의 “Together for the Common Good” 프로젝트는 공동선의 의미와 실천을 통해 교회를 활성화하고 공동선 원칙을 실천하고 공유된 목적을 위해 서로 다른 의견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2) 송용원, 『하나님의 공동선』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20), 112.

3) 월터 브루그만/윤상필 옮김, 『하나님, 이웃, 제국』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20), 62.

4) 앞의 책, 62.

5) 앞의 책, 63.

6) John Chrysostom, *Saint Chrysostom: Homilies on the Epistles of Paul to the Corinthians* ed. Philip Schaff,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 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1<sup>st</sup> Series, vol. 12; (Edinburgh: T&T Clark, 1989), 146.

7) 짐 윌리스/박세혁 옮김, 『하나님 편에 서라』 (서울: IVP, 2014), 423.



협력함으로써 직업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연대를 육성하고 있다.<sup>8)</sup> 관계 구축을 핵심 사명으로 여기는 이 프로젝트는 혼란과 깊은 변화의 시기에 교회가 사회적, 영적 각성에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회의 소명을 활성화하고 있다. 공동선 프로젝트의 원칙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공동선, 둘째, 인간성(인간의 존엄성, 인간 평등, 노동의 존엄성, 생명 존중), 셋째, 사회적 관계(화해, 참여, 보조성, 연대), 넷째, 청지기직이다. 이러한 원칙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관대함의 정신으로 운영하고, 에큐메니컬하고, 힘을 실어주고, 격려하고,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sup>9)</sup>

공동선을 향한 효과적 청년 사역을 위해서는 대학청년 사역자들이 속한 공동체만을 위한 파편적이고 편협한 사역에 매몰되지 않고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통전적 사역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에 대한 신학적인 틀과 협력의 체계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듀크 대학교의 스탠리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와 베일러 대학교의 윌리엄 윌리몬(William H. Willimon)은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Resident Aliens: Life in the Christian Colony*)에서 정체성을 상실하고 방황하는 현대 교회의 특징을 세 가지로 보았다. 즉 교회와 국가의 기형적 통합을 성취한 콘스탄티주의, 이성과 신앙의 통전성을 해체한 계몽주의,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개인들의 사상누각으로 변질시킨 개인주의의 포로가 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이들이 제시한 해법은 “하늘나라의 식민지”로서 교회의 자기 정체성 회복이다. 즉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이 땅에 정착해 안주하지 않으며, 이 땅의 현실에 영향을 받고 있으나 이 현실과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고, 이 땅의 타락에 저항하지만 하늘의 진리로 혁명을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교회와 캠퍼스 선교단체를 비롯한 대학청년을 위해 헌신한 사역자들은 계몽주의와 개인주의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시대의 대학청년들을 하늘나라의 식민지로 회복시켜야 할 사명이 주어진 사람들이다.

최근의 캠퍼스와 대학청년 사역의 상황은 크게 위축되어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에 대학청년 사역을 위한 전략도 대폭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 청년은 사회와 역사에 대한 고민보다는 안정적인 직장 취업을 위한 고시와 취업 학원처럼 주 관심사가 바뀌었다. 가상화폐를 통해서라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일확천금을 얻는 것이 현명한 삶이다. 자신만의 ‘노오력’으로 인생 대박을 꿈꾸는 자조(自助) 사회에서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다. 이들에게는 대학 캠퍼스에서의 신앙 활동마저도 분주한 인생에서의 사치일 뿐이다. 이들을 섬기는 캠퍼스 사역자들 역시 빠듯한 생계를 꾸려가며 근근이 사역을 이어가며 ‘맨땅에 헤딩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것인 단순한 상상과 논의 차원이 아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세우고자 하는 교회와 캠퍼스 사역자들의 절박한 상황이 되었다. 한국교회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고 대부분의 교세가 기울어가고 있는 현실, 그리고 청소년과 대학 청년이 텅텅 비어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심각성을 직시한다면 이러한 논의는 당분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교회의 공간 활용, 그리고 공신력을 담보한 정부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공적자금을 최대한 선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들의 온전한 연합과 효과적 전략 모색은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우리의 과제이며 이제부터 지속적인 논의의 광장으로 모여야 할 것이다.

8) <https://togetherforthecommongood.co.uk/about/our-purpose> (2023년 10월 31일 최종접속함)

9) Ibid.